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 온라인 코칭챗 질문지_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No	구분	질문
1	(사전 질문) 인재상/스펙	금융공기업은 자격증이나 어학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서류전형에서 탈락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서류전형에서는 자격증, 어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 지원자의 자격사항이나 어학성적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여진다면, 자기소개서에서 직무 관련 경험, 업무역량, 기업 적합성 등을 충분히 어필하여 이를 보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진공 채용공고에는 인정 자격증과 어학점수, 배점기준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업마다 공개범위와 평가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관심있는 기업의 채용공고를 확인해보고 그에 맞춰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우대 자격증 한두 개만으로도 경쟁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자격증은 많을수록 유리한 편인가요?
A		서류전형 계량평가에서는 인정 자격증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최대 20점)를 얻을 수 있으므로 비교적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수가 적더라도 어학성적, 교육사항, 자기소개서 등 다른 항목을 잘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진공은 채용 공고에서 인정 자격증 목록과 배점을 공개하고 있오니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어학 성적은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수준이면 충분한지, 아니면 높은 점수가 서류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A		중진공은 어학성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서류전형 계량평가 시 배점 기준에 따라 0점(성적 미보유)에서 최대 10점까지 득점 가능합니다. 중진공은 해외사업 관련 직무도 수행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기본역량 확인을 위해 서류전형에서 어학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4	(사전 질문) 자소서/서류전형	스펙이 비슷한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요소가 최종적으로 합격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기관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사업과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자 본인이 기관의 인재상 및 직무에 맞는 사람임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용 전형 전반에서 본인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임을 보여준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5		서류 평가에서 다른 분야의 금융 공공기관(ex.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이 실제 업무 이력으로서 유의미한 평가 요소로 반영되는지, 아니면 단순 청년인턴 경험으로만 인정해 실무 경험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A		중진공은 분야와 상관없이 최근 3년 내 재정경제부 지정 공공기관에서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3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비계량평가 우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 경력이 있으시다면 경험한 일, 업무를 단순히 나열하기 보다 인턴 과정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 부분, 새롭게 도전하고 성취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내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을 중진공 업무 수행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연결할 수 있다면 지원만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청년인턴 직무기술서에 '서류 준비'나 '심사 지원' 등 업무보조 위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자기소개서에서는 직무기술서를 어떻게 활용에 차별화된 강점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A		청년인턴 직무기술서에 주요 직무가 서류 준비, 심사 지원 등 포괄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지원코자 하는 기업의 주요 사업을 파악하여 어떠한 업무가 주어진 지 생각해보고, 해당 업무에서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포인트(지식, 태도 등)를 잡아내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잘 연결시킨다면 충분히 차별성을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	(사전 질문) 필기시험	현직자 분의 자기소개서 작성 팀이 궁금합니다! 서류전형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하셨나요?
A		자기소개서 작성 시 기관의 인재상, 전략목표, 수행사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관이 원하는 인재, 필요로 하는 역량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민을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 시 기관별 키포인트를 정하고, 이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경험 및 구체적인 결과가 뒷받침된다면 본인의 강점, 기관 적합성을 어필하면서 다른 자기소개서와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경험이 부족한 지원자라면, 어떤 경험을 자기소개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험은 부족하더라도, 지원자가 지금까지 겪어온 여러가지 경험들에서 지원자의 특성과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 동아리나 단체활동에 참여했던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공모전 참가 경험 등. 얼핏 사소해보이는 경험일지라도 리더십과 팔로워십, 조직 적응력, 문제 해결력, 창의성과 도전정신 등 지원자의 직무 역량을 키워온 바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이야기, 본인만이 풀어낼 수 있는 '나의 이야기'를 기관의 인재상이나 직무와 연결해보시고 이를 진정성 있게 어필해보시기 바랍니다.
9		금융공기업 필기 공부법이 궁금합니다. NCS 점수 올리는 꿀팁이 있을까요?
A		필기 공부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전공지식평가로 구분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 준비를 하였습니다. (NCS)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빠른 시간 내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스킬이 중요하다고 판단,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풀이 노하우를 습득하고자 노력하였으며 5급/7급 PSAT 기출문제 위주 공부하였습니다. (전공) 전공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공부하였습니다. 기본 개념을 정리하면서 문제풀이도 함께 진행하였고, 인강 및 교재를 n회독하며 잊어버리지 않고 정확히 문제를 풀도록 노력했습니다.
10	(사전 질문) A	금융공기업에서는 NCS의 비중이 낮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중진공은 필기전형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60%, 전공지식평가 40%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하지만 평가방법, 비중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으니 채용공고를 꼭 참고하셔서 필기전형을 준비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		타 금융권과 병행하여 필기 준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융공기업에만 중점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같은 금융공기업이라도 회사마다 NCS, 전공 비중이나 출제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공기업/비금융공기업으로 나누기 보다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기준에 맞춰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기반 채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금융권과는 채용절차, 준비방법 등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사오니, 이러한 점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 온라인 코칭챗 질문지_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2	(사전 질문)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셨나요? 실제 도움이 되었던 준비 방법이나 팁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A	면접	면접을 준비할 때 면접스터디 참여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답변 수준의 편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스터디에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는 경험을 꾸준히 겪으면서 대처방법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답변 과정에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시선처리, 손짓, 태도, 안좋은 습관 등을 객관적인 시선을 통해 피드백을 받고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13		순환근무 시에는 연고지나 거주지를 어느 정도 고려해 배치 되는 편일까요?
A		신입 입사 후 첫 발령 시 입사 직무, 연고지, 본인 희망 등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근무 중인 직원도 희망근무지 작성, 인사상담 등 진행 후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발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평온한 마음가짐으로 자신감을 잃지 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취업이라는 결과에 다다르기까지 많은 탈락 이메일을 받게 되고, 취업 준비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아들더라도 빠르게 털어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을 준비한다면 원하는 기업에 본인의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15	(사전 질문)	입사 후 돌아봤을 때, 취업 준비 당시 가장 먼저 준비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기타	1)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취직은 우리가 살면서 내리는 여러가지 '중요한 결정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고 보니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좋대, 저건 어땠대'하며 휩쓸리다가 내린 결정보다는, 나 스스로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 후회가 적고 결과적으로 괜찮았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우선 나라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나의 장단점과 성향' 등을 스스로 분석해보고,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충분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 기업과 업무 중에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돌아봤을 때 '후회없고 만족스러운 선택'을 내릴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2) 본인이 목표로 하는 기업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및 어학성적을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 자기소개서 작성 및 채용전형 참가로 인해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또한, 어학성적 및 특정 자격증을 자격요건으로 지정하거나 서류전형에서 계량점수로 반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취득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어학성적 및 자격증을 먼저 취득해 입사지원 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추천드립니다.
1		중진공은 다양한 정책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입사원도 주도적으로 업무를 맡을 기회가 많은 편일까요?
A		우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담당하게되는 모든 업무에서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진공은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인력양성, 지역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정책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사업부서에 배치되신다면, 사업을 기획하는 업무보다는 실제 운영하는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과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직급이 올라감에 따라 신규사업 기획 등의 새로운 업무도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부서가 아닌 기관운영 관련 부서에 배치되신다면 경영기획,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도 있고 지역본부나 연수원 등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서이든 어떤 업무이든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사전 질문)	금융 관련 경험보다 중소기업이나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도 중 어떤 점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실지 궁금합니다.
A	특정 기업 대상 질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 분야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전반적인 관심과 이해도를 갖추신다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과 관련한 여러 정책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정책금융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과 관련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입사 후 업무 이해와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중진공은 금융 분야 이외에도 수출지원, 인력, 창업, 지역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 및 경제정책 흐름, 지원사업의 종류와 특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해도를 갖춘다면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		중진공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A		중진공은 성장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기회를 얻지 못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판이 되어주고,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은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공단의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거나, 매출과 수출이 늘어나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해나가는 사례를 마주할 때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근무할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청창사에서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초기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데요, 중진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직원도 늘어나고, 사업모델이 정교해지고, 첫 매출이 발생하고,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스타트업과 대표님이 점차 성장해가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함께하며 기뻐했을 때, 중진공 근무 중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 온라인 코칭챗 질문지_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		회계/세무 관련 전문직 1차 시험(세무사 1차 등) 합격 이력이 있는데, 이를 자소서나 이력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향후 면접에서 직무 전문성 측면에서는 어필이 될 것 같지만, 혹시나 '나중에 다시 시험을 보려 퇴사하지 않을까' 하는 이탈 우려 때문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A		전문직 1차 합격 경험을 자소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직무전문성 등을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2		평소 금융 관련 인사이트를 키우기 위해 가장 추천하시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		평소 금융 관련 뉴스, 이슈 등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편입니다. 해당 정보를 접하면서 경제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정부정책 관련 부처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등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3		혹시 평균 신입 나이가 중요한 곳인지 궁금합니다.
A	(자유 질문) 인재상/스펙	블라인드채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원자들의 나이를 수집하지 않으며 실제 입사자들을 보면 다양한 나이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청년나이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4		AI활용능력이 금융공기업에서도 중요한 역량으로 대두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업무 수행 시 AI활용능력이 중요한 역량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실제로 업무에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5		금융 관련 경험이 아예 전무하다면, '아르바이트' 같은 관련 없는 경험이라도 최대한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A		금융 관련 경험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겪어온 여러가지 경험들에서 지원자의 특성과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 경험 등 사소해보이는 경험이라도 리더십과 팔로워십, 조직 적응력, 문제 해결력, 창의성과 도전정신 등 지원자의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이야기, 본인만이 풀어낼 수 있는 '나의 이야기'를 기관의 인재상이나 직무와 연결해보시고 이를 진정성 있게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
6		디지털/IT 직무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제관련 지식과 IT지식중에 더 고려해야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A	(자유 질문) 직무	직무기술서 및 채용공고를 읽어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례로, 상반기 채용공고 기준 IT융합 직무는 전공지식평가 시 IT, 빅데이터, 인공지능 중 한 가지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준비 부탁드립니다. 경제관련 지식과 IT관련 지식 모두 직무수행에 있어 중요하지만, IT직무를 별도로 채용하기 때문에 직무 고유 특성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		업무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학회나 관련 수업 이외의 예시가 궁금합니다.
A	(자유 질문) 자기소개서/서류 전형	직무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사례는 학회, 관련 수업 외에도 자격사항, 어학, 청년인턴 등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시어 자기소개서 작성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		저는 실태조사와, 하나의 산업에 대한 경영분석, 그리고 정부예산을 산정하는 원가계산 업무 경력이 있습니다. 직무를 변경하려 하는데 각 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까요? 자소서에 어떻게 녹여내야 할까요?
A		실태조사, 경영분석, 원가계산 업무 경험은 경영기획이나 기업평가 등의 직무에서 실제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경력이 될 것 같고, 이를 저희 회사의 업무와 잘 엮어내신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		여성 합격자들의 평균 나이가 궁금하고, 취업 전 공백기가 몇 년으로 길 경우 면접에서 관련 질문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	(자유 질문) 기타	우리 기관은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합격자들의 나이는 다양한 편입니다. 또한, 면접은 직무역량, 인재상 등을 검증하는 질문 위주로 진행되며, 이와 관련 없는 내용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10		디지털(데이터사이언스 유관직무) 직무는 이번 하반기채용이 예정되어 있는지, 몇 명 채용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A		상반기 IT융합직무로 5명 채용공고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하반기 채용계획은 미정입니다.
11		신입 기준 인턴 경험 없는 합격자와 있는 합격자의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모집공고 마다 비율이 달라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청년인턴 경력 없는 입사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직무역량 등을 잘 어필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유 질문) 특정 기업 대상 질문	기업평가 직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재무제표 및 기술성 등을 바탕으로 기업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 이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 온라인 코칭챗 질문지_한국투자공사

No	구분	질문
1	(사전 질문) 인재상/스펙	금융공기업은 자격증이나 어학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서류전형에서 탈락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한국투자공사는 모집 분야별로 어학 지원자격(투자운용 TOEIC 900점 이상, 투자관리·경영관리 TOEIC 850점 이상 등)과 직무유관 자격 및 우수 어학능력에 대한 우대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류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준비 과정, 그리고 본인의 경험이 직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스펙을 나열하기보다 왜 KIC와 해당 직무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경험과 노력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우대 자격증 한두 개만으로도 경쟁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자격증은 많을수록 유리한 편인가요?
A		KIC의 우대사항은 '직무유관 자격 보유'와 '우수 어학구사능력' 두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같은 항목 내에서는 여러 자격을 보유하더라도 하나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CFA Level2와 FRM을 모두 보유하더라도 직무유관 자격 항목에서는 하나의 가점만 적용됩니다. 반면, 직무유관 자격과 우수 어학구사능력을 각각 충족하면 두 항목 모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하는 것보다 지원 직무와 관련된 자격을 갖추고, 직무 이해도와 자기소개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3		어학 성적은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수준이면 충분하지, 아니면 높은 점수가 서류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A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수준의 어학성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적인 지원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채용공고에서 안내하는 기준에 따라 TOEIC Speaking AM 이상 또는 OPIc AL 이상과 같은 우수 어학성적은 별도의 우대사항으로 적용됩니다.
4	(사전 질문) 자기소개서/서류전형	스펙이 비슷한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요소가 최종적으로 합격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지원자 간 스펙이 비슷하다면 지원 직무에 대한 관심과 준비 과정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시장이나 해외 투자와 관련된 뉴스를 꾸준히 찾아보고, 그 내용을 단순히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이런 변화가 발생했는지, 주식채권 환율 등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스스로 고민해 본 경험은 면접과 자기소개서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또한 재무관리, 경제학, 통계학 등 직무와 관련된 기초 전공 지식을 충실히 익히고, 이를 실제 금융시장 사례와 연결해 이해하려고 노력한 경험도 큰 강점이 됩니다. '무엇을 준비했는가'보다 '왜 그렇게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보여주는 지원자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서류 평가에서 다른 분야의 금융 공공기관(ex.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이 실제 업무 이력으로서 유의미한 평가 요소로 반영되는지, 아니면 단순 청년인턴 경험으로만 인정해 실무 경험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A		다른 금융공공기관에서의 인턴 경험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투자공사는 글로벌 자산운용기관이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 등에서의 경험이 한국투자공사의 투자업무와 직접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의 업무 방식, 보고 체계, 협업 과정을 경험했다는 점은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관명 자체보다 인턴 과정에서 어떤 업무를 맡았고, 그 경험을 통해 어떤 역량을 키웠으며, 그것이 KIC의 지원 직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득력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청년인턴 직무기술서에 '서류 준비'나 '심사 지원' 등 업무보조 위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자기소개서에서는 직무기술서를 어떻게 활용해 차별화된 강점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A		직무기술서에 '서류 준비'나 '심사 지원'처럼 보조 업무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경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정리했다"라고 쓰기보다, 어떤 업무를 맡았고, 과정에서 어떤 문제나 비효율을 발견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업무 정확도나 처리 속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담당자나 동료의 반응은 어땠는지까지 설명하면 좋습니다. 업무의 중요도보다 주어진 일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이해하고 개선하려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7	(사전 질문) 자기소개서/서류전형	현직자 분의 자기소개서 작성 팀이 궁금합니다! 서류전형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하셨나요?
A		자기소개서에서는 지원 직무를 중심으로 일관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왜 금융기관 중 한국투자공사인지, 왜 해당 직무를 희망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위해 수업, 인턴, 동아리, 프로젝트, 자격 준비 등 어떤 경험을 쌓아왔는지 연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그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투자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까지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을 많이 나열하기보다, 지원 직무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경험을 선택해 준비 과정, 배운 점, 입사 후 기여 가능성을 깊이 있게 설명하는 편이 더 효과적입니다.
8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경험이 부족한 지원자라면, 어떤 경험을 자기소개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직무와 직접 관련된 인턴이나 프로젝트 경험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 경험의 직무 관련성을 억지로 강조하기보다, 그 경험을 통해 보여준 문제해결력, 학습능력, 협업 태도, 책임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익숙하지 않은 분야를 스스로 학습해 성과를 낸 경험, 팀원들과 의견 차이를 조율한 경험, 맡은 업무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한 경험 등이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투자공사의 인재상인 Professionalism, Integrity, Loyalty, Accountability, Respect와 본인의 경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 부족한 직무역량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것인지 구체적인 성장 계획을 함께 제시하면 좋습니다.
9		금융공기업 필기 공부법이 궁금합니다. NCS 점수 올리는 꿀팁이 있을까요?
A		한국투자공사는 청년인턴 채용에서만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영역은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의사소통능력입니다. NCS는 단기간에 암기해서 점수를 올리기가보다, 문제 유형과 시간 배분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 문제집이나 모의고사를 활용해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는 정답만 확인하기보다 왜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어떤 접근법을 놓쳤는지를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정해두고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문제 선별 능력과 풀이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 제한된 시간 안에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10	(사전 질문) 필기시험	금융공기업에서는 NCS의 비중이 낮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기관마다 필기전형의 구성과 평가 비중이 다르므로, 반드시 지원하려는 기관의 채용공고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KIC의 경우 청년인턴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신입직원은 모집 분야별 직무 전문지식 평가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청년인턴 지원자는 NCS의 각 영역과 시간 관리에 집중해야 하며, 신입직원 지원자는 지원 분야의 전공과목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집분야별 시험과목 투자운용 : 재무관리 / 투자관리 : 재무관리 + 통계학 또는 경제학 중 택1 / 경영관리 : 경영학 / IT : 전산학
11		타 금융권과 병행하여 필기 준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융공기업에만 중점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한국투자공사 신입직원 필기전형은 재무관리, 경제학, 통계학 등 직무 전문지식을 평가하므로, 다른 금융공기업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민간 금융회사 준비와도 상당 부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과 회사마다 시험 방식과 요구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 전공지식을 기본으로 준비하되 지원 기관별로 보완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KIC 투자운용 직무를 준비한다면 재무관리 기본기를 갖춘 뒤, 글로벌 금융시장과 자산운용 이슈를 함께 학습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을 동시에 준비하더라도 지원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기보다는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와 전공과목이 겹치는 기관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12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셨나요? 실제 도움이 되었던 준비 방법이나 팁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A	(사전 질문) 면접	면접을 준비할 때는 글로벌 금융시장 이슈, 한국투자공사의 최근 뉴스, 한국투자공사가 매년 발간하는 연차보고서 등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국투자공사가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 최근 시장 변화가 KIC의 운용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지원 직무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연결해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 환율, AI 투자, 대체투자,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이슈를 접했을 때, 해당 이슈가 주식·채권·대체자산과 포트폴리오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줄지 본인의 언어로 정리해보면 실무자 면접과 PT면접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 온라인 코칭챗 질문지_한국투자공사

13		순환근무 시에는 연고지나 거주지를 어느 정도 고려해 배치 되는 편일까요?
A		한국투자공사는 국내 근무지가 서울 본사 한 곳이므로, 일반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순환근무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해외 거점이 존재하지만 배치는 본인의 의사와 역량, 경력개발 계획, 조직의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지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14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사전 질문) 기타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무엇을 더 해야 할까'에 집중하게 되지만, 먼저 내가 어떤 직무와 조직에 잘 맞는 사람인지를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채용담당자라면 어떤 지원자를 뽑고 싶을까?'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면, 어떤 산업과 직무를 준비해야 할지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혼자 준비하기보다 취업 스터디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과 실제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하는 회사와 직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동안의 경험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과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만의 강점을 꾸준히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15		입사 후 돌아봤을 때, 취업 준비 당시 가장 먼저 준비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돌이켜보면 취업 준비 초기에 다양한 직무를 충분히 탐색하는 시간을 더 가졌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히 관심 있는 산업, 기업만 정하기보다, 각 직무에서 실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먼저 이해했다면 준비 방향도 훨씬 명확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직무 인터뷰, 기업 채용 설명회, 현직자 콘텐츠 등 직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이런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가 어떤 일을 즐기고 잘하는지, 지금까지의 경험이 어떤 직무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민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취업 준비는 자신에게 맞는 직무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시작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한다면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도 훨씬 자신감 있게 본인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1		합격자들의 평균적인 스펙(어학, 자격증, 대외활동, 인턴 경험 등)은 어느 정도였나요? 또한, 주로 어떤 기업이나 기관에서의 경험이 많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합격자들의 어학성적은 대체로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수준이었으며, 점수 자체보다는 직무와 관련된 준비 경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투자운용-투자관리 분야 합격자 중에는 CFA, FRM, 투자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 관련 자격을 보유하거나, 대학 투자학회/금융학회에서 활동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에서 인턴 경험을 쌓은 지원자도 있었습니다. 자격증이나 인턴 기관의 이름보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지원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합격자의 사례는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본인의 경험을 직무와 연결해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데 집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한국투자공사는 신입 채용에서도 경력이나 인턴 경험을 중요하게 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서류전형에서는 유관 경력이나 인턴 경험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A		인턴 경험이 있으면 직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인턴 경험의 유무만으로 평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서류전형에서는 지원자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보다,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지원 직무와 어떻게 연결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인턴 경험이 없다면 관련 프로젝트, 인상깊게 들었던 수업, 학회 활동 등도 충분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을 직무와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3	(사전 질문) 특정 기업 대상 질문 (한국투자공사)	한국투자공사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어떤 태도나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하나요? 특히 조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통 방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면접에서는 지원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답변할 때는 아는 내용을 과장하거나 결론만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어떤 근거와 판단 과정을 거쳐 의견을 도출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모르는 질문에는 무리하게 답하기보다, 알고 있는 범위를 명확히 밝히고 본인의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태도가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4		한국투자공사의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신입 지원자라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1차 면접은 일반적으로 실무자 면접과 PT면접으로 진행되며, 투자운용 직무의 경우 영어 PT면접으로 진행합니다. 실무자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직무이해도, 지식, 경험, 문제해결 과정 등을 확인하고, PT면접에서는 주어진 주제의 핵심을 파악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전달하는 역량을 평가합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금리·환율, 주식·채권, 대체투자, 지정학적 이슈 등은 실무자 면접과 PT면접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뉴스를 암기하기보다 이 이슈가 금융시장과 KIC의 자산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5		빅데이터 기업 인턴 경험과 투자 관련 프로젝트 경험이 있고, 지금은 자격증과 어학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어떤 역량이나 경험을 갖추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A		빅데이터 기업 인턴 경험과 투자 관련 프로젝트 경험은 금융투자 업무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데이터 분석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경험으로 보입니다. 투자 직무를 희망한다면 앞으로는 해당 경험을 금융과 연결하는 준비가 도움이 됩니다. 이에 재무관리, 투자론, 경제학 등 Finance의 기본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 이슈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표현하는 연습을 추천합니다. 이미 보유한 경험을 데이터 분석을 통한 KIC 직무 기여로 연결해 설명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 온라인 코칭챗 질문지_한국투자공사

1	(자유 질문) 인재상/스펙	회계/세무 관련 전문직 1차 시험(세무사 1차 등) 합격 이력이 있는데, 이를 자소서나 이력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향후 면접에서 직무 전문성 측면에서는 어필이 될 것 같지만, 혹시나 '나중에 다시 시험을 보러 퇴사하지 않을까' 하는 이 탈 우려 때문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A		말씀하신 직무전문성을 드러내는 측면에서 회계와 세무 등 제반 지식이 충분히 도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이너스 요소로 인식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2		평소 금융 관련 인사이트를 키우기 위해 가장 추천하시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금융관련 최근 Investing닷컴이나 BBC 등 메인 언론 이외에도 AI를 활용한 데일리 뉴스 정리 등을 메일로 수신하고 있습니다. 농치기 쉬운 전날의 금융시장 이슈에 대해서 팔로우 할 수 있어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3		혹시 평균 신입 나이가 중요한 곳인지 궁금합니다.
A	(자유 질문) 직무	블라인드 채용 특성상 전형 진행 중에 나이를 알 수 없으며, 신입 채용의 경우 나이가 다양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4		SI활용능력이 금융공기업에서도 중요한 역량으로 대두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SI활용 능력은 산업이나 직무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또한 SI를 활용한 여러 방식을 시도하고 있고 그렇기에 SI 활용 능력은 앞으로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5		디지털/IT 직무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제관련 지식과 IT지식중에 더 고려해야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A		디지털 IT 직무는 경제관련 지식보다는 IT지식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자유 질문) 자기소개서/서류전 형	업무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학회나 관련 수업 이외의 예시가 궁금합니다.
A		개인적으로 투자관련 거시분석을 진행하거나, 개별 주식에 대한 가격 예측, 밸류에이션 등 수행한 것들도 업무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로 보입니다.
7		디지털(데이터사이언스 유관직무) 직무는 이번 하반기채용이 예정되어 있는지, 몇 명 채용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A		IT관련 직무는 예정하고 있으나 현재 미정으로 향후 올라올 공고(8월말 예정)를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면접 때 전역 후 공백기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니다. 금융자격증을 취득하고 고객응대 역량을 위해 매장에서 알바중이다 라고 답변했는데 금융자격증은 필요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공백기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A	특정 기업 대상 질문 (한국투자공사)	블라인드 채용 원칙상 공백기를 감점 요인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면접에서 관련 질문을 받게 되신다면, 그 기간 동안 어떤 노력이나 경험을 하셨는지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블라인드라고 하지만 결국 합격자소서를 보면 대부분 전공자이고 학회, 전공 수업, 인턴 경험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비전공자들 중에 합격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경험과 준비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A		비전공자의 경우 아무래도 학회나 전공수업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일반적으로는 자격증 취득 등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 전문성을 강조하여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		투자운용직 관련 질문 있습니다. 영어PT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실제 출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A		원어민 수준의 완벽한 문장구성과 발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금융/경제관련 주제를 영어를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다만 금융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적인 영어와 다른 경우가 많아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자유 질문)	1. 투자운용역 기준 어떤 태도와 자세가 가장 중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재무관리 필기시험은 cpa 재무관리 연습서, 금투본, cfa 교재 중 어떤 것과 가장 비슷한 지 어떤 교재를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 이번 채용에서도 토익스피킹까지 자격 요건으로 인정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4. 금투본 없이 투운사만 갖고 있어도 합격에는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A		1. 투자운용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이슈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호기심과 탐구심이 많고 어떤 사건이 촉발할 연쇄고리를 예측하는 것을 즐기는 태도를 가진 분들도 많습니니다. 2. 재무관리 필기시험은 CPA 재무관리 연습서로 공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3-4. 토익스피킹도 자격요건으로 인정되며, 투자자산운용사가 운용사의 대표 자격이므로 무방할 것 같습니다.
5		현재까지는 직무관련으로는 교환학생 당시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페이퍼를 쓴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기획 인턴과 회계법인 인턴등 직무와 상관없는 인턴 경험과 ai 제작 프로젝트밖에 없는데 직무 관련 인턴을 하는것이 필요할까요? 자소서 면접에 집중할지, 아니면 더 채워야 할 지 궁금합니다.
A		말씀하신 투자프로젝트가 어떤 주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투자 관련하여 스스로 탐구해본 경험은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직무 관련 인턴이 없더라도 자기소개서를 통하여 강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투자운용직 필기를 CPA 1.5차 수준으로 준비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실제로 어디까지 준비하셨을까요? 더불어 계산기 사용여부, 말문제와 계산문제 비율도 궁금합니다.
A	특정 기업 대상 질문 (한국투자공사)	준비하신 분들마다 개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었고, 계산 문제가 좀더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7		금융공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블라인드 기준이 궁금합니다. 나이나 학교를 포함해서 학점 또한 블라인드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맞습니다. 나이, 학교, 전공, 학점, 성별, 출신지 등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면접관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8		영어면접 출제방식은 어떻게 나오나요? 주제를 주시고 즉석에서 논리를 풀어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주제와 Article을 제공하고 20~30분간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대담할 내용을 간략히 메모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합니다.
9	(자유 질문)	1. PT 외에 토론 면접은 따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밸류에이션, 산업분석 경험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는지 등..
A		1. 토론면접은 현재 따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답하는 입장에서든 이해하는 입장에서든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했던 경험을 잘 복기하여 면접 등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		경영관리 필기 시험과목인 경영학은, 일반 경영학, 투자관리, 중급회계 등이 광범위하게 출제되는 걸까요?
A		일반 경영학 기준으로 보고 투자관리나 중급내지 고급 회계 영역까지 출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